

Webmaster

주광국 (68)

2015 년 가을이었다. 당시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이던 서윤석동기 부탁으로 동창회 treasurer 를 맡고 있어서 자주 만나 동창회 일을 상의하곤 했다. 서윤석회장이 우리 동창회 website 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. 그 당시 공식적인 동창회 website 는 없었지만 우리 동창회 동문이 사적으로 만든 website 가 있었고 domain 도 우리 동창회를 뜻하는 website 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동문들이 우리 동창회의 공식 website 로 인식하고 있었다. 하지만 사적으로 운영되어 동창회 소식과 공지사항등을 게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우리 동창회를 대변하는 공식 website 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. Website 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. Website 는 전문적인 회사에 맡기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. 그 운영도 전문회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문회사에게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고 동창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할 수도 없고 해서 여간 불편할 수 밖에 없다.

Website 는 일반 computer 와 달리 programming language 를 사용하므로 PC programming 을 배워야 한다. 그것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Medical Science 에서 사용하는 FORTRAN programming 을 배웠다. Nuclear medicine practice 할 때 General Electric company 에서 생산한 Nuclear gamma camera 와 computer 를 구입해서 사용하여 GE medical system 에서 사용하는 FORTRAN programming 을 배웠고 그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program 을 만들어 nuclear medicine practice 에 사용했었다. 이 FORTRAN Programming 은 PC Programming 과 아주 다르지만 Programming 원리는 조금 비슷했다. 그래서 동창회 website 를 만들어 내가 책임자로 할 때 걱정이 앞섰지만 맡을 수가 있었다.

그 당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여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의 website 를 만들 때 참여했던 남명호(81) 동문이 Virginia 에 살고있어 서윤석 회장과 함께 우리 세 사람이 우리 동창 website 를 만들기로 했다. 남명호 동문의 추천으로 northern Virginia 에 있는 Gimga Web Design Company 에 의뢰하여 website 를 만들기로 했다. 여러 번의 회의와 많은 file 을 주고 받은 후 10 개월만인 2016 년 9 월 15 일 한국의 추석날에 드디어 “www.snucmaaus.org” 와 “www.snucmaaus.com” 의 domain name 으로 우리 미주 동창회 website 를 launching 하게 되었다. Website homepage 에는 학창시절때 매일 왔다갔다하고 들락날락하던 강의실이 있던 서울대학교병원 빨간 시계탑건물(문화재 사적 제 248 호로 제정되어있고 지금은 의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)을 간판사진으로 만들었다. 그래서 우리 website 를 클릭해서 병원 시계탑 건물이 보이는 homepage 가 떠오를 때 약간 희열을 느끼며 감개무량했다.

Website 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우리 세 사람은 website 를 만든 회사에서 한 시간의 강의 “How to edit website”를 받았지만 아무도 PC Programming 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idea 가 없었다. 그래서 programming 을 독학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internet 을 뒤져보았다. 생소한 JavaScript, HTML, CSS 등 새로운 languages 를 이해하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훑어보는 수 밖에 없었다. 동창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공고사항이 있으면 practice 를 많이 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게 되었다. 실제로 새로운 소식을 동창회 사무실에서 보내와서 동창 website 에 올려야 하는데 상의해 볼 사람도 없어서 혼자서 강의내용과 program protocol 만 보면서 시행착오를 여러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소식을 게재할 수 있었다. 대단한 성과였고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. 동창회 소식, 사는 이야기, News & Announcements 등 간단한 소식은 올렸으나 동창회 학술대회 때 찍은 사진들과 학회소식을 게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다. 한 시간 강의 받은 “How to edit website”를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했으나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면 쉽게

되지않아 몇 번이고 이리해보고 또 달리해보고 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후 마침내 성공할 수가 있었다. 이제 조금씩 자신이 생겼다. 그러나 진짜 어려운 문제는 '시계탑' 신문을 Website 에 게재하는 일이었다. 간단하게 설명을 받았지만 강의 받을 당시 정확한 programming 의 지식이 없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가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idea 가 없었다. 시계탑의 16 면을 따로 따로 한 페이지씩 올리면 나는 쉽지만 동문들이 읽을 때 한 장 한 장 넘겨야 하는 불편이 있다. 좋은 방법은 16 면을 한 장의 파일로 만들어 필요할 때 scroll down 해서 쉽게 편리하게 읽을 수 있고 또 소요되는 메모리 양도 적게 소모된다. 그렇게 만들려면 출판사에서 받은 PDF file 을 불필요한 부분은 찢르고 JPEG file 로 전환한 후 그 모든 파일들을 순서대로 부쳐서 하나의 JPEG file 을 만든 후 다시 PDF file 로 전환해야 한다. 이렇게 하는 과정을 internet 를 통해 2 program apps 을 이용해야만 했다. 그러나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idea 가 없었다. 전전긍긍 하면서 "How to edit website" 메모지만 열심히 읽었지만 묘수가 나오지 않았다.

"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."는 성현의 말씀대로, University of Illinois 에 다니는 처 외손자가 미국에서 첫 Thanksgiving 방학을 맞이하여 일 주일을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. 우리 집에 올 때 까지는 그가 무엇을 전공하는지 전혀 몰랐었다. 그는 한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Champaign, Illinois 에 있는 University of Illinois 에서 Computer Science 를 공부하는데 Programming 을 전공하고 있었다. 나는 얼마나 그가 반가웠는지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. 내가 못해서 찢찢매던 시계탑 파일을 쉽게 website 에 게재해 주었다. 필요한 programs 을 internet 에서 download 하고 또 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켜 주어 열심히 메모해 두었다. 그리하여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나혼자 website 를 편집할 자신이 생겨났다. "구하라. 그러면 얻을 것이다. 청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. 두들겨라. 그러면 열릴 것이다." 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.

우리 동창회 website 도 자리잡혀 갔다. 동창회 소식, 학술대회의 많은 소식과 사진들, 시계탑 그리고 사는 이야기들을 website 에 편하게 게재할 수 있었다. 미주동창회 이사회에서도 website committee 에 대해 발표할 수 있었다. 더우기 website 를 맡은지 일년이 지나 아주 무척 젊은 후배, 2009 년 졸업한 송경민 동문이 associate chair 를 맡게 되었다. 그는 medicine 뿐만 아니라 IT 도 전공이어서 IT venture 사업에 뛰어난 젊은 인재였다. 그가 있어서 이제는 마음 든든하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. Website 를 launching 한 이래 외부의 전문회사의 도움없이 우리의 힘으로 동창회의 새로운 소식, 학술대회 소식과 프로그램, 많은 대회사진들, 동문들의 최근소식과 사는 이야기, 시계탑 등을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.